S-OIL

5

S-OIL MAGAZINE
MAY 2020
VOL. 462

04 공감 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12 스포츠라이트
축구와 개혁

14 읽고 듣는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방금 들린 그 목소리'

38 팝업 정보창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S-OIL MAGAZINE
MAY 2020
VOL. 462

통권 제462호 **발행일** 2020년 5월 7일 **발행처** 에쓰-오일 주식회사 홍보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제작 ㈜디자인소호 02-514-5164·㈜성환인쇄 02-2273-0583
안내 일부 기사*의 게재를 잠정 보류합니다.
* <달리는 희망 주유소> <취미 연관 검색어> <가족 추억 공작소>

MADE
함께 만드는 가치

04
공감동화
[최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06
고전 속 핵심가치
[정도] 불요불굴
흔들림 없는 판단력

08
표창자 인터뷰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윤제필 사우(생산최적화팀)

IN
우리 안의 성장판

10
습관의 기적
약이 되는 말
[칭찬] 습관

12
스포츠라이트
생명력 강한 유연성
[축구와 개혁]

14
읽고 듣는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방금 들린 그 목소리'

16
언제나 건강
소리 없는 침략자
[악성 신생물]

18
이달의 활력평가
5월 탐구영역 [가정]

20
터벅터벅 소도시
[우표 본고장]
리히텐슈타인 파두츠

24
정원의 품격
맑은 향취 은은한 기품
[이천 안흥지 애련정]

표지 속 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경청은 최고 위치를 향해 매진하는 과정에 반드시 되새겨야 할 덕목입니다.
당나귀 귀를 가진 전래동화 속 임금은 열린 자세로 세상을 향해 귀 기울임으로써 결국
어진 성군으로 거듭납니다. 감추고 싶은 허물도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고언까지 지혜롭게
수용해 변화와 진보를 꾀하는 자세야말로 핵심가치 최고에 걸맞은 모습입니다.
*관련기사 4쪽

S-OIL
앞서나가는 에너지

28
두런두런 이야기방
영남알프스
1000고지 9봉우리 완등기 ①

도서 <B급 세계사> 독후감

31
함께하는 풍경
안전캠페인 시행

휘발유 엔진용 윤활유
최신 국제규격 인증 신제품 출시

제28회 오영수문학상 후원
소설가 김인숙 선정

35
주요 경영활동
사우디아람코 우수 합작투자기업 어워드
4년 연속 수상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후원금 전달

38
팝업 정보창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40
임직원 동정

42
독자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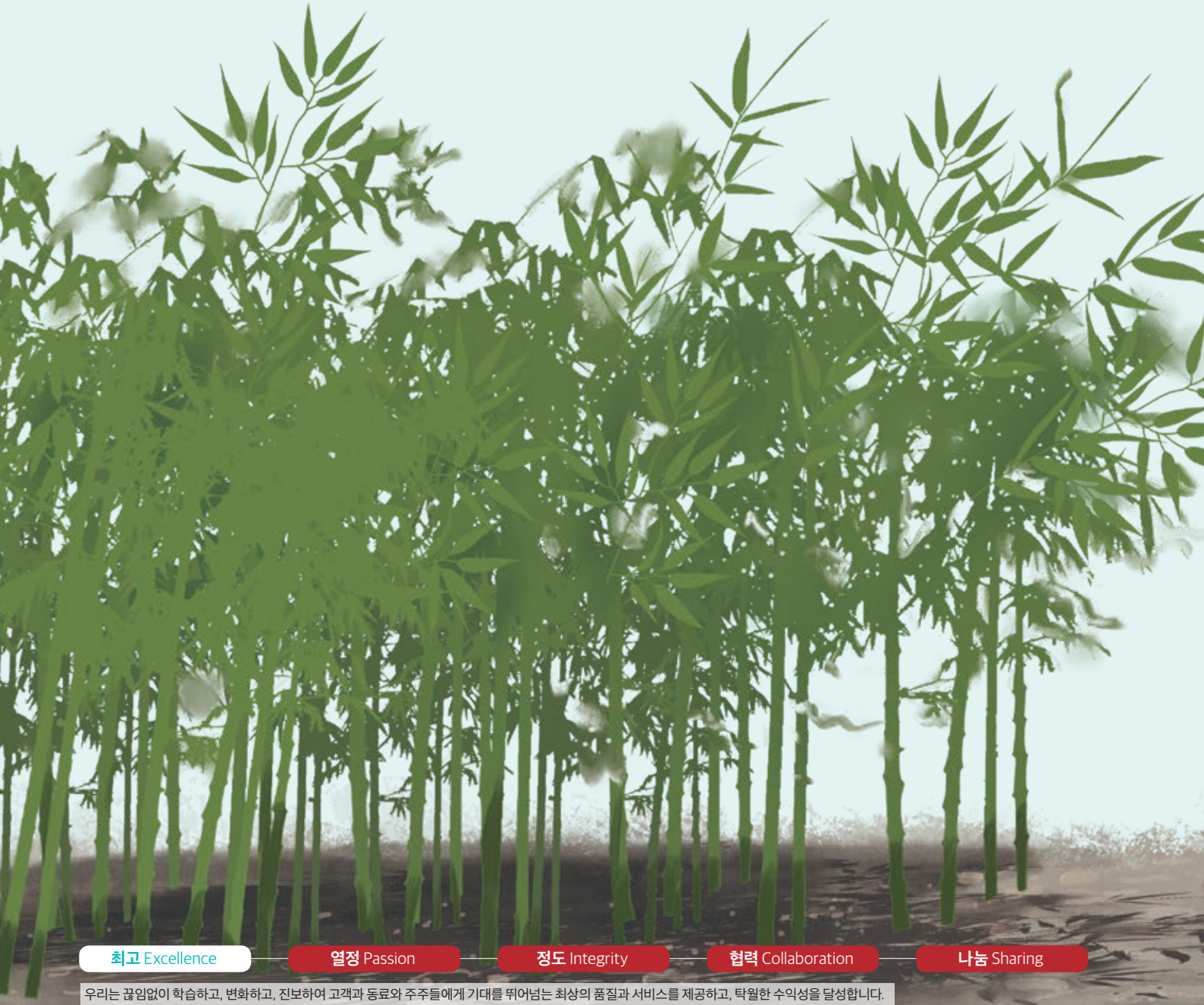
제5화 [최고]

열린 귀의 인정과 수용

귀의 역할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
위치를 파악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귀를 닫는다는 것은 소통 단절을 넘어 고립을 뜻한다.
개방과 협업으로 성공 시너지를 창출하는 시대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는 핵심가치 중 최고(Excellence)를 완성하는 소중한 단서를 전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글. 이일야(<동화가 있는 철학 서재> 저자)



세계 여러 곳에서 큰 귀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다스 왕이 태양신 아폴로의 노여움을 사서 당나귀 귀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익숙한 전래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있다.

'여이설화(驢耳說話)'란 제목으로 일연의 <삼국유사>에 실린 이 이야기는 신라 제48대 경문왕 고사로부터 유래됐다. 어느 날 귀가 당나귀처럼 길어지자 경문왕의 두건을 만드는 사람이 비밀을 알고는 대나무밭에서 큰 소리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다는 이야기다.

실제 경문왕은 스스로를 개혁군주로 자칭하고 민심과 계파를 하나로 모으며 유달리 큰 귀를 열어 아랫사람들의 말을 경청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전래동화가 각색을 거쳐 교훈적 결말을 맺는 이유다. 우리 동화 속 임금은 백성의 말을 경청하라는 뜻이 커다란 귀에 서려 있음을 깨닫고 어진 임금으로 거듭난다.

약점 이기는 '정면 승부'

임금의 당나귀 귀는 허물을 상징한다. 신하는 임금에게 큰 귀를 감추고 소문을 없애는 데 급급하기보다 오히려 백성들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이기를 간청한다. 마침내 임금은 자신의 귀를 가리고 있던 큰 왕관을 벗어던진다. 약점을 감추는 대신 거짓 없이 나서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진정성 담긴 정면 돌파는 최고의 위치로 향하는 정직한 길이자, 비 온 뒤 땅처럼 신뢰를 다져 최고로서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다.

혁신의 시작 '경청'

임금이 신하의 조언을 듣지 않고 민심에 귀를 닫아버린 채 끝났다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교훈으로만 기억됐을 것이다. 하지만 전래동화는 우리들에게 경청, 즉 서로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한 덕목임을 깨닫게 한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최고를 지향한다면 귀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선배님 귀는 당나귀 귀', '후배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을 허물없이 주고받으며 더 나은 길을 찾아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조직은 대나무 숲의 대쪽처럼 최고 높은 곳까지 뻗어나가며 청명한 미래로 향한다.

"이제부터 나의 큰 귀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삼국유사 어디까지 읽어봤니?>* 중에서

* <삼국유사 어디까지 읽어봤니?>(이강엽 옮김·나무를 심는 사람들·2016)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청소년 권장도서로 초·중·고등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와 원전 내용을 엮었다.

不撓不屈

핵심가치
[정도] 편

흔들림 없는 판단력

글. 박수밀(고전문학자)

── 질서 회복의 요건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일이다. 어느 해 초여름, 장안(長安)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 성안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며 짐을 챙겨 피난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전해 받은 성제는 깜짝 놀라서 각료 회의를 열었다.

"지금 난데없이 홍수가 난다는 소문이 퍼져 백성들이 여기저기 피난한다는데 어찌된 영문이오?" 대장군인 왕봉(王鳳)이 나섰다. "폐하, 점쟁이 말에 의하면 장마가 지는 건 틀림없다고 합니다. 속히 피하셔야 합니다." 많은 신하가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때 재상인 왕상(王商)이 의연하게 나섰다. "장안에 떠도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한 달 뒤 홍수가 날지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분명 혼란을 불러일으켜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의 짓이라 생각됩니다. 폐하마저 가짜 소문에 흔들리면 민심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폐하와 조정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흔들림이 없어야 혼란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성제는 왕상의 말이 옳다고 판단한 뒤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가짜 소문을 흘리는 자를 찾아 엄벌로 다스렸다. 실제로도 홍수 범람은 근거 없는 소문이었다. 불안해하던 민심은 가라앉았고 혼란하던 질서도 제자리를 찾았다. 휘둘리지 않고 굽히지 않는 불요불굴(不撓不屈)의 단호한 태도는 질서 회복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불요불굴

휘거나 굽히지 않음

不撓不屈

不 아니 불
1. 아니다 2. 못하다

撓 꺾일 요
1. 어지럽다 2. 휘다

不 아니 불
1. 아니다 2.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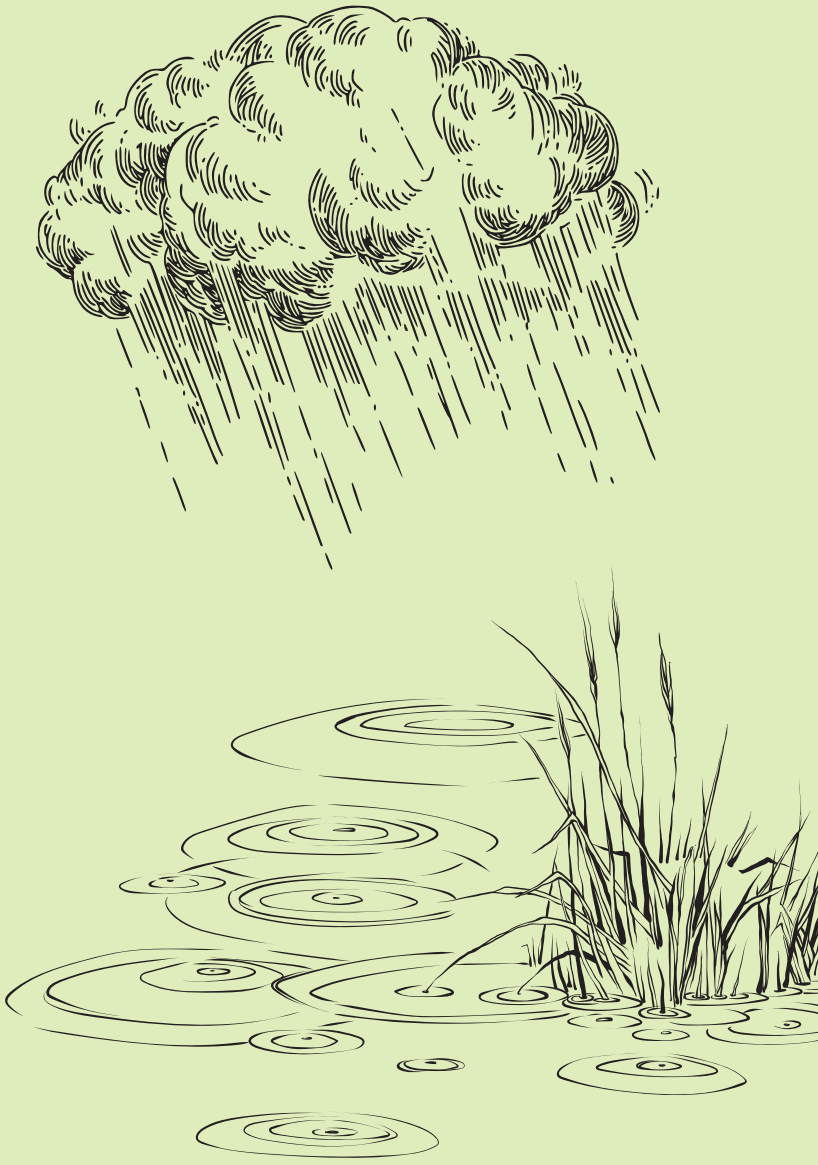
屈 굽을 굴
1. 굽히다 2. 구부러지다

—— 옳음에 대한 확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려 하자 대부분 신하가 반대했다. 사대부들은 이미 문명어(한자)가 있는데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훈민정음은 오랑캐 문자일 뿐이라고 결사적으로 막았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글을 몰라 불편함을 겪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꼭 해결해주고 싶었다. 신하들은 상소문까지 올리며 극구 말렸지만, 세종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다.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일을 추진한 결과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뛰어난 문자 창제의 위업을 달성하게 됐다.

옳은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휘둘리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미혹되는 정보를 잘 가려내는 판단력과 의연한 행동력은 위기 순간에 진가를 발휘한다.

전 세계가 재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의연한 자세가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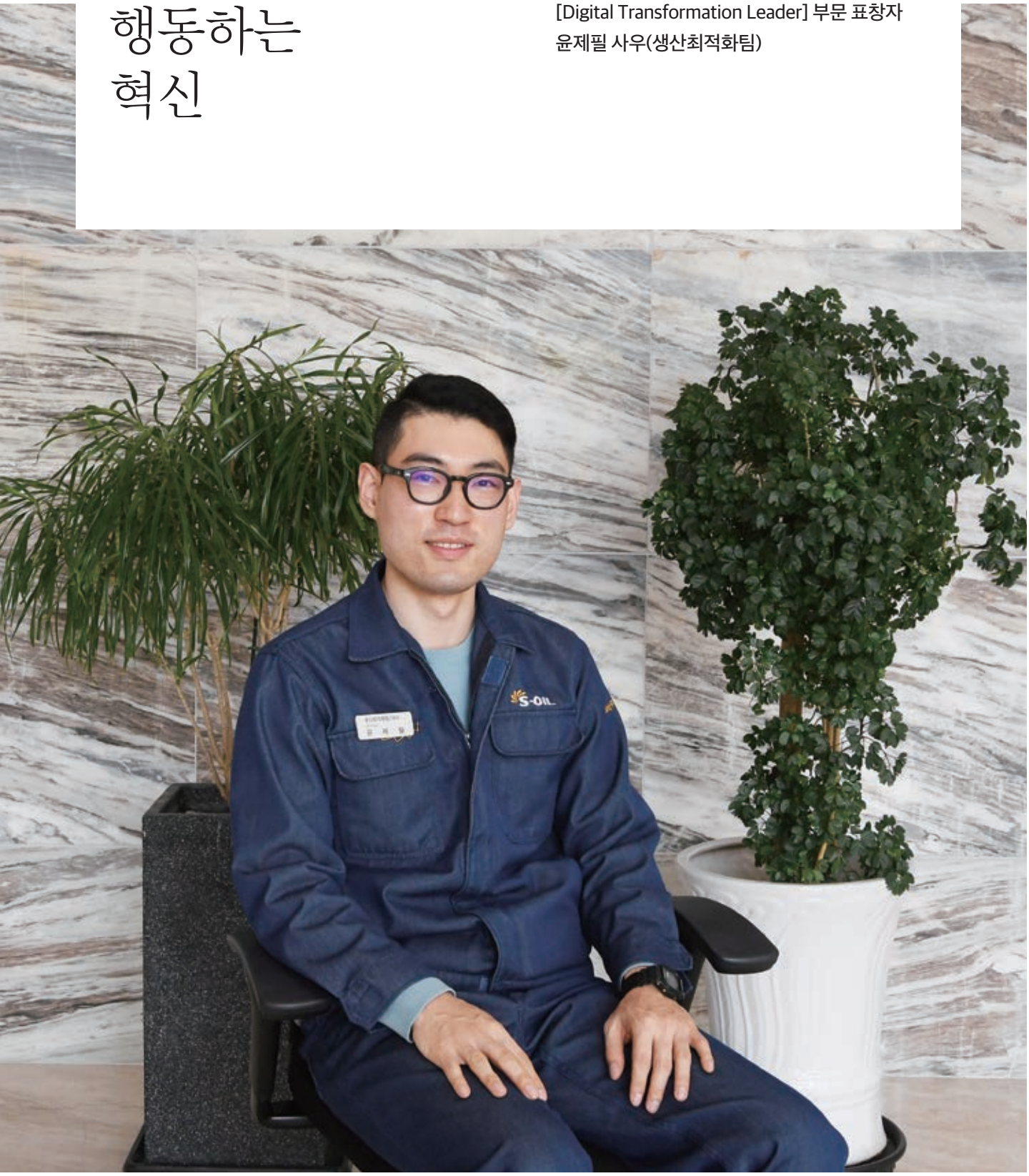
핵심가치 [정도]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不撓不屈 不撓不屈 不撓不屈

不撓不屈 不撓不屈 不撓不屈

행동하는 혁신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부문 표창자
윤제필 사우(생산최적화팀)



도전 앞에 망설임이 커질 때는

생각을 멈추고 바로 행동에 돌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적 운전 방향성 찾아 프로젝트 시동

기업은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꾸준히 관리해나가며 성장한다. 시장 변동성이 날로 커지는 환경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기본적으로 공정의 운전은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안정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적인 생산 계획을 세우고 차질 없이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동안 축적된 공정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 운전의 방향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생산최적화팀 윤제필 사우를 주축으로 아로마틱 공정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시장 변동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이었다. 프로젝트는 더 큰 성장의 바다를 향해 순항하기 시작했다.

운전 조건에 따른 경제적 모델 개발

윤제필 사우는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고 유관부서와 협업해 잠재적 문제 요소들을 해소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나갔다.

"아로마틱공정팀과 협업을 통해 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당사 운전 실적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의 비교·분석을 진행하며, 공정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개발 방향을 정하고 정확도를 높인 협업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예측된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에 대응한 PIMS(Process Industry Modeling System) 모델 개발에까지 다다랐다.

더 큰 희소식은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복잡한 반응 과정에도 적용·응용이 가능해져 한 차원 높은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발 모델을 활용해 시황과 공정 변동을 고려한 공급 원료 구매부터 공정 운전 조건 설정까지, 전사적 최적 운전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시뮬레이션 모델 유지와 보수를 통해 앞으로도 디지털 변환 효과를 지속해서 가져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품 시장 변동성에 따른 최적 공급 원료 구매 등 공정의 잠재적 이익 창출이 기대된다. 프로젝트에 헌신한 윤 사우는 'Digital Transformation Leader'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다.

혁신으로 향하는 길

윤 사우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쌓고 이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으려 노력하고 있다.

"서로 다른 팀의 관점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간의 업무 이해도를 넓히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이번 프로젝트 협업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빠른 의사 결정이 업무 효율성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도전 앞에 망설임이 커질 때는 생각을 멈추고 바로 행동에 돌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는 정제 공장의 타 공정에도 공정 운전 변동성과 시황을 고려한 최적 운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리니어 프로그램 모델 개발과 업데이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구축된 모델을 꾸준하게 개선하고 최신 공정 운전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화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단입니다. 회사 전반에 걸쳐 다량의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해 시장 변화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만,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결국 개개인의 이해와 판단입니다.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이 되는 말

[칭찬] 습관

칭찬은 중요한 대화의 기술이자
설득하는 힘이다. 칭찬에 인색한 조직은
단기적 성과를 얻을지언정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습관화한 전략적 칭찬은
조직에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1 뇌가 웃는 칭찬 효과

칭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쾌락과 행복, 기쁨과 관련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킨다. 특히 뇌에서 보상을 처리하는 영역인 보상 중추를 활성화시켜 자발성을 이끌어낸다. 자존감과 지위감 강화에도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힘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이른바 상승효과다.
다만 구체적이고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막연하거나 모호한 칭찬은 역효과를 가져온다. 안목 있는 칭찬을 위한 기술과 연습은 어렵지 않다. 가족과 동료를 향한 관심과 배려로 일상 속에서 칭찬의 단서를 찾아내 꾸준히 실행에 옮긴다.

칭찬 3원칙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잘했다'는 칭찬에 익숙해진 이들은 안정적인 선택지를 택하는 경향이 크다. 도전과 자기계발을 북돋는 칭찬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상황 등 갖춰야 할 원칙이 있다.

● 타이밍
칭찬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시일이 지날수록 효과는 급감한다. 아울러 칭찬은 공개적으로, 비판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파급력이 강하다.

● 결과보다 과정
정량적 결과만이 아닌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력과 협업 등을 정성적으로 살핀다. 이를 위해서는 칭찬 대상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돼야 한다.

● 구체성
막연한 칭찬 또는 인사치레인 격려는 전달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책임 회피의 구실이 된다. 개인의 업무와 행동에 따른 맞춤 피드백이 중요하다.

2

3

칭찬의 기술

과도한 칭찬이 때론 독이 될 수 있다. 자만심이 업무 소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원의 정체성이나 행동을 제약하는 칭찬은 오히려 업무 의욕을 떨어뜨린다. 근거를 들어 최대한 담백하게, 굵고 짧게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 큰 울림을 남긴다.

● 독이 되는 칭찬 VS 약이 되는 칭찬

"박 차장이 연일 야근하며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어려웠을 거야!"(X)

"박 차장의 과감한 추진력이 제대로 진가를 발휘했군."(O)

"이 대리는 늘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군. 희생정신이 정말 강해."(X)

"이 대리의 배려가 귀감이 되네."(O)

"김 대리가 맡은 프로젝트는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군."(X)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김 대리의 성장이 기대되는군."(O)

규칙 정하기

칭찬도 다른 습관처럼 일정한 장소와 시간 등 규칙을 정하면 실천하기 수월하다. 회사나 가정만큼 칭찬을 필요로 하는 곳도 없다. 어떤 가정과 조직이든 반드시 장점은 있다.

● 칭찬으로 여는 회의

좋은 행동을 지속·반복시키는 데 칭찬의 목적이 있다. 업무 회의는 최적의 기회다. 회의 시작 전 30초 칭찬으로도 생산적인 30분 회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 험담 금지의 날 정하기

험담을 멈추기만 해도 칭찬 요소들이 자연스레 생긴다. 스스로 정한 날만큼은 몸속 불순물을 빼내듯 부당하거나 상처를 주는 언행을 참는다.

● 밥상머리 칭찬

가정에서 실천하기 좋은 칭찬 규칙이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될수록 식탁에 둘러앉은 시간의 중요성은 커진다. 가족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잔소리가 아닌 칭찬으로 표현한다.

4

경기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스포츠 종목 중
축구는 단연 으뜸이다.
경기 규칙을 제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해마다 4월 새 경기 규칙을
공표한다.
끊임없이 규정을 개선하며
진화해나가는 축구의
유연성을 통해 살아있는
조직의 요건을 발견한다.

생명력 강한 유연성

축구와 개혁

글. 공규택(<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 저자)

그때 그 경기!

진화 거듭하는 스포츠 규정

최근 축구 규정의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중 데드볼(dead ball·일시적인 플레이 중단 상황) 규정이 이슈다. 경기가 중단되면 곧바로 경기 시간이 멈춰 선수들이 뛰는 시간이 90분으로 유지된다. 데드볼 규정이 도입되면 경기 중 태업과도 같은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른바 '침대 축구'로 이름 붙은 경기의 개선이다. 또한 부상이나 교체 등을 구실로 흘려버리는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 예정이다. 경기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돼 축구 팬이라면 반색할 만한 규정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비교적 규정이 단순해 보이는 축구는 경기 규정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수년마다 규정이 바뀌고 있을 만큼 경기 규칙이 유연하다. 대표적으로 2016년 비디오 판정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주심의 오심 논란이 자주 불거지자 결국 국제축구연맹(FIFA)은 비디오 판정 제도를 도입했고 덕분에 승부에 관한 갖가지 논란과 논쟁을 잠재울 수 있었다.

스포츠 잡학사전

스로인에 담긴 개혁

축구가 태동해 자리를 잡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축구의 종가 영국에 윌리엄 건이라는 선수가 있었다. 어깨가 유달리 강해 그가 스로인(Throw-in)을 할 때 축구공을 무려 54m까지도 던질 수 있었다. 급기야 스로인으로 직접 골을 노리는 경우마저 생기자, 대다수 선수와 감독들이 원성을 쏟아냈다. 발로 하는 축구의 본령을 해친다는 이유다. 결국 스로인을 할 때 자세를 제한하기로 했다. '반드시 두 발을 땅에 대고, 양손으로 공을 던져야 한다'는 규정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스포츠 관련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 속 플레이

역동적인 조직의 비밀

게임 규칙이 비교적 단조로운 축구가 100년이 훨씬 넘도록 살아남아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유는 끊임없는 변화와 유연성에 있다. 경기를 운영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조정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탁월했다. 축구뿐 아니다. 모든 스포츠 규칙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해간다. 스포츠가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이유다.

직장에도 성문화한 갖가지 규정들이 존재해 조직과 집단의 기반을 이룬다. 때로는 구성원들을 보호하거나 복잡한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하지만 반대로 시대의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는 낡은 규정 때문에 업무에 발목이 잡힐 때도 있다. 업무에 발생하는 각종 마찰은 뜻밖에도 규정 탓일 때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업무 과정에서 부딪히는 규정의 모순이나 오류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이때 그저 관례나 관습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효용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폐기할 것과 고쳐 쓸 것을 분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회사가 스포츠처럼 역동적으로 진화한다.

방금 들린 그 목소리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방금 들린 그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비야의 이발사>

글. 정은주(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조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1792~1868)
이탈리아 작곡가

로시니는 관악기 연주자인 아버지와 성악가였던 어머니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14세에 첫 오페라 <테메트리오와 폴리비오>를 작곡했고, 4년 뒤 선보인 오페라 <결혼 보증서>가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다. 이탈리아 고전 오페라를 화려하게 계승하며 동시대 음악가인 베토벤보다 높은 인기를 누렸다. 대표작으로 <세비야의 이발사>, <모세와 파라오>, <빌헬름 텔> 등이 있다. 그러나 37세를 기점으로 그는 오페라 작업을 멈췄다. 독특하게도 음식을 연구하며 여생을 보냈다. '알라 로시니'라고 불린 그의 요리 비법은 현재까지도 유럽 식당에서 활용되고 있다.

#로지나

방금 들린 그 목소리는 내 가슴에 메아리쳤어요.
내 가슴에 화살이 박혔어요.
린도르야말로 화살을 꽂은 사람이죠.
네, 린도르는 이제 내 것이 될 거예요.
맹세코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어요.
내 후견인은 한사코 막겠지만,
머리를 짜고 재주를 피워 꼭 이겨내겠어요.
그를 달래고 진정시켜 반드시 뜻을 이룰 거예요.
나는 온순하고 남에게는 친절하며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고
다정하고 정이 깊어요.
참을 줄도 알며 가르치면 순순히 배우죠.
하지만 혹시 내 어떤 결점을 찌르면 독사가 되죠.
얼마든지 덫을 놓아 항복을 받을 때 까지 조여 들어가죠.

#ROSINA

Una voce poco fa qui nel cor mi risuonò,
il mio cor ferito è già, e Lindor fu che il piagò.
Sì, Lindor mio sarà, lo giurai, la vincerò.
Il tutor ricuserà, io l'ingegno aguzzerò.
Alla fin s'accheterà e contenta io resterò
Sì, Lindoro mio sarà; lo giurai, la vincerò.
Io sono docile, son rispettosa,
sono obbediente, dolce, amorosa; mi lascio reggere,
mi fo guidar. Ma se mi toccano dovè il mio debole
sarò una vipera, e cento trappole prima di cedere
farò giocar, giocar. e cento trappole prima di
cedere farò giocar, farò giocar.

<세비야의 이발사> 작품 속으로

로지나에게 첫눈에 반해 그의 집 앞을 서성이던 알마비바 백작이 우연히 자신의 하인으로 일했던 피가로를 만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동네 이발사로 일하며 로지나의 집에도 드나드는 피가로는 백작의 사랑을 위해 유쾌한 작전을 꾸민다. 로지나를 후견인인 의사 바르톨로에게서 벗어나게 하려 피가로는 거짓 신분으로 백작을 변장시켜 둘에게 접근하도록 하지만 결국 정체를 들키고 만다. 로지나도 자신을 여러 번 속인 백작을 원망하지만 결국 바르톨로에게서 벗어나 백작과 모든 오해를 풀고, 결혼 증명서에 서명한다.

아는 만큼 들리는 오페라 상식!

로시니 크레센도 (*Rossini Crescendo*)
로시니의 특징적인 작곡 스타일이다. 하나의 선율이 두 개의 선율로, 나아가 수십 개의 화음을 만들어낸다.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음악적 장치도 늘어나 청중의 감정을 극대화시킨다.

파스티쵸 (*pasticcio*)
18세기 유행하던 오페라 작곡 방식 중 하나다. 다른 작곡가의 작품에서 선율을 빌려와 자신의 작품에 알맞게 편곡하는 방식이다.

#1 13일 만에 완성한 인생 작품

프랑스 희곡 작가 피에르 보마르셰의 코미디 <피가로 3부작> 중 '세비야의 이발사'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오페라는 10편 가까이 된다. 당시 최고로 인기를 누린 이야기인 만큼 작곡가들이 앞다퉈 오페라로 만들었다. 로시니도 그중 한 명이다. 1816년 2월 20일 로마 아르젠티나 극장에서 <알마비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렸다. 원래 작품명을 <세비야의 이발사>로 정했지만 30년 전 이미 러시아에서 같은 제목의 오페라를 발표한 작곡가 파이지엘로 추종자들의 위협 때문에 제목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지엘로 추종자들은 로시니의 첫 무대를 무참히 방해했다. 고양이 떼를 무대에 풀고 야유를 퍼부었다.

로시니는 초연에서 쓴 잔을 마셨지만, 두 번째 공연부터 대단한 성공을 거두며 유럽 전역에 명성을 떨쳤다. 작품 이름도 <세비야의 이발사>로 다시 바뀌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시니의 오페라는 자기 복제작이다. 자신이 작곡한 다른 작품의 선율을 재편곡해 단 13일 만에 완성했다. 1막 대부분의 아리아가 그가 이전에 만든 작품이다.

#2 방금 들린 그 목소리

<세비야의 이발사>는 총 2막(약 3시간 10분)으로 구성된다. '방금 들린 그 목소리'는 1막 2장에서 로지나가 린도르의 사랑을 쟁취하겠다고 다짐하는 편지를 쓰는 장면에 흐르는 아리아다. 자신을 감금하다시피 한 후견인 바르톨로를 증오하던 로지나가 어느 날 자신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준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구해줄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열망을 기분 좋게 노래한다.

로지나는 메조소프라노 또는 소프라노, 알마비바 백작은 테너, 피가로와 바르톨로는 바리톤이 맡는다. 로지나 역은 본래 메조소프라노를 위해 작곡됐지만 소프라노가 부르기도 한다. 아리아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화려한 기교가 필요한 콜로라투라(coloratura) 아리아인 까닭이다.

오케스트라 연주는 젊은 연인의 사랑을 응원하는 듯 밝고 경쾌하다. 플루트와 현악기 화음이 로지나의 설레는 마음을 잘 표현한다.

소리 없는 침략자

악성 신생물*

암은 진행이 빨라 진단받은 뒤 치료를 받지 않으면 5년 이상 생존은 거의 불가능하다. 암 치료 뒤 5년을 기준으로 완치 판정을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존율도 늘어났지만 암 질환의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어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5대 암 중심으로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

* 세포조직이 자율적으로 비정상적이고 지나치게 증식하는 악성종양

1월 심장 질환 | 2월 관절염 | 3월 당뇨병 | 4월 뇌혈관 질환 | 5월 악성 신생물 | 6월 간 질환 | 7월 정신·행동 장애 | 8월 호흡기 결핵 | 9월 신경계 질환 | 10월 갑상선 장애 | 11월 고혈압 | 12월 만성 신장병

정의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

의학적 용어로 악성 신생물로 불리는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으로 발생하는 악성종양에 해당한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다른 장기로 전이된다.

국립암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4%에 달한다. 3명 중 1명꼴로 발견된다.

우리나라 전체 암 사망률 (2019년 9월 발표, 통계청)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22.6%	13.4%	11.1%	9.8%	7.6%

전체 암 사망률 1위 폐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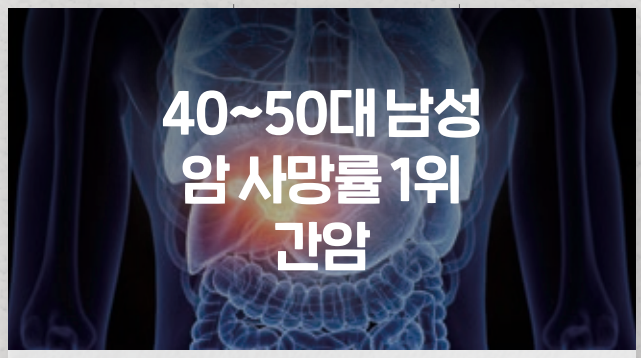
원인 ▶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직·간접흡연은 물론, 조리 중 매연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환경 모두 원인이 된다.

증상 ▶ 각혈·기침 장기화·목소리 변성·체중 급감·식욕 감퇴·호흡장애·잦은 폐렴·거친 숨소리

검사 ▶ 만 54세~74세 이하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 간격으로 무료 검진(저선량 흉부CT) 진행

폐암 발생상 고위험군 : 30갑/년 이상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X흡연 기간(년)



원인 ▶ 기존에 간경변증이나 만성 간염이 있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비만으로 인해 지방성 간염이 생길 수 있다. 간경변증과 간암의 최대 원인인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없는 경우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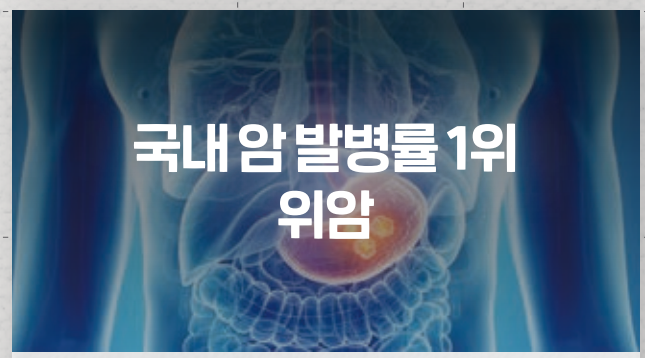
증상 ▶ 식욕부진·체중 급감·오른쪽 윗배 통증·복부 팽만감·황달

검사 ▶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또는 국가암건진을 통해 무료 검진 진행
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경변증·B형 간염항원 양성·C형 간염항체 양성·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원인 ▶ 편중된 육류 섭취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은 물론 가족력과도 관련이 높은 암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유전성 대장암 환자라면 자식 두 명 중 한 명은 암이 발생한다. 직장암과 결장암으로 구분되며 그중 결장암은 식습관과 복부비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증상 ▶ 장출혈로 인한 빈혈·혈변·식욕 저하·체중 감소·복부 팽만감

검사 ▶ 분변잠혈검사결과에 따라 1년에서 5년 간격으로 검진 진행



원인 ▶ 우리나라에서 발생률 1위를 차지한다. 환경적 요인과 함께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직계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짜거나 부패한 음식, 불에 탄 음식은 삼가고 흡연도 위암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증상 ▶ 속 쓰림·체중 급감·복통과 복부팽만·혈변·오심과 구토·식욕 감퇴·위장관 출혈·소화 장애

검사 ▶ 만 40세 이상이면 2년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또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무료 검진 진행

원인 ▶ 췌장암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됐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최저 생존율(10%)을 보이는 암으로 악명이 높다. 소화기계 질환 증상과 비슷해 혼동될 수 있지만 위내시경으로는 췌장암을 발견할 수 없다. 최선의 예방법은 금연과 금주, 별도의 조기검진이다.

증상 ▶ 복부 통증·당뇨·황달·체중 급감·소화 장애·허리통증·오심과 구토·식욕 부진

검사 ▶ 만성췌장염이나 제2형당뇨병, 가족력 등이 있는 고위험군은 복부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를 활용한 정기 검진 필수

감수. 전재우(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의원)

5월

탐구영역 [가정]

인문

1. 보기에서 설명하는 그림 속 인물은?

<보기>
[ ]는 마네, 르누아르, 카유보트를 초대해 자신이 살고 있는 아르장퇴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 아래 그림은 마네가 행복한 [ ] 가족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① 드가
② 모네
③ 고흐
④ 클림트

2. 효(孝) 관련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① 망운지정(望雲之情)
② 반포보은(反哺報恩)
③ 관포지교(管鮑之交)
④ 풍수지탄(風樹之歎)

3. 효심 깊은 율곡 이이의 모친이자 뛰어난 서화가였던 신사임당의 아래 그림 제목은?

① 초충도
② 월매도
③ 진경산수화
④ 묵포도도

4. <보기>와 관련된 인물을 찾으시오.

<보기>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① 아동문학가 윤석중
② 아동문학가 방정환
③ 시인 윤동주
④ 소설가 김유정

사회

5.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개정 시행되는 가운데 다음 중 틀린 내용은?

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 의무 일시정지
②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과태료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③ 제한속도 60㎞/h에서 40㎞/h 이하로 조정
④ 법적 보호 대상을 '어린이 보행자'에서 13세 미만 보행자 또는 자전거·킥보드 탄 어린이로 확대

6. 가정의 중요성과 책임 의식 확산을 위해 UN이 제정한 이 날은?

① 세계 가정의 날
② 러브 패밀리
③ 감사의 날
④ 어버이의 날

7. 1인 가구와 관련된 신조어가 아닌 것은?

① 나나랜드
② 홀로족
③ 싫존주의
④ 일코노미

5월

정답·해설

1. *자료 : <마네와 모네> 김광우 지음·2017

② 모네

마네는 종종 모네의 집을 방문해 함께 그림을 그리며 많은 시간을 나눴다. 그림은 마네의 1874년 작 <아르장퇴유 정원의 모네 가족>이다.

2. *자료 : 국립국어원

③ 관포지교(管鮑之交)

① 망운지정(望雲之情)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② 반포보은(反哺報恩)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어 보답한다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함으로써 효를 행함을 이르는 말

③ 관포지교(管鮑之交)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란 뜻으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

④ 풍수지탄(風樹之歎)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3. *자료 : 두산백과

④ 묵포도도(墨葡萄圖)

5만 원권 앞면에 등장하는 그림이다. 5천 원권 앞면에는 신사임당의 <초충도(草蟲圖)>가 그려져 있다.

4. *자료 : 두산백과

① 아동문학가 윤석중

<어린이날 노래> <퐁당 퐁당> <빛나는 졸업장> 등 윤석중 시인(1911~2003)이 발표한 우리말 동시 1천200편 동시 중 800여 편이 동요로 만들어졌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로서 2003년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5.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③ 제한속도 60㎞/h에서 40㎞/h 이하로 조정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제한속도의 경우 기존 40㎞/h에서 30㎞/h, 보행공간이 없다면 20㎞/h 이하로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6. *자료 : 보건복지부

① 세계 가정의 날

1989년 유엔(UN)에서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지정한 이래,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가정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다.

7. *자료 : 국립국어원

③ 싫존주의

① 나나랜드

영화 <라라랜드>에 빗대어, 자신이 주인공인 세상에 살고자 하는 홀로족이 꿈꾸는 무대를 의미

② 홀로족(HOLO)

건강 관리(Health care)·대용량 제품(Oversize)·은둔(Life at home)·온라인 쇼핑(Online shopping)을 선호하는 1인 가구

③ 싫존주의

'싫어하는 것마저 존중하는 주의'를 줄여 이르는 말

④ 일코노미

1인과 경제(Economy)의 합성 신조어로 1인 가구 확산과 함께 나타난 경제 현상

Travel Information

이동시간
인천~스위스 취리히
(비행기 약 14시간)

취리히 중앙역~사르간스역
(기차 약 50분)

사르간스역~파두츠
(버스 30분)

시차
한국보다 7시간 느림

화폐
스위스 프랑
(1프랑 ≒ 한화 1천270원)

교통수단
버스

미래에 부치는 편지

[우표 본고장] 리히텐슈타인 파두츠

글. 이효선(중앙대 명예교수)

리히텐슈타인의 미래는 과거와 맞닿아 있다. 왕가의 숨결이 살아있는 입헌군주국으로서 나라의 정체성을 공고히 유지해나가며 지난 역사를 보존·계승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기술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 대신 갖고 있는 자원을 탁월하게 활용한다. 우표산업이 대표적이다. 세계 우표의 요람으로서 크고 작은 역사적 순간들을 작은 종이 안에 담아 미래에 부친다.

유럽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

세계에서 여섯 번째, 유럽에서는 네 번째로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은 서쪽으로는 스위스, 동북쪽으로는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남북으로 25㎞, 동서로 6㎞로 뻗은 면적이 서울의 4분의1인 160.4㎢에 불과하다. 1719년 지금의 수도인 파두츠와 셀렌베르크가 합방해 리히텐슈타인의 모습을 갖췄지만 1866년에 이르러 한 국가로서 완전한 독립을 이뤘다.

세계 최초의 우표

관광업과 우표판매가 국가의 주 수입원인 것도 리히텐슈타인의 독특한 모습이다. 1850년 세계 최초로 이곳에서 우표가 도입됐지만, 리히텐슈타인이라 명기한 최초의 우표는 1912년 2월 1일 발행됐다. 그 전까지 쓰던 오스트리아 우표는 무효화됐다. 파두츠 중심가에 있는 우표 박물관에는 1912년 이후 발행된 우표들이 전시돼 있다.

우표 박물관

1936년 개관 이래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유서 깊은 우표와 우편 장비들을 통해 리히텐슈타인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다. 희소가치 높은 300여 종의 우표들과 역사적인 서류들, 우편서비스 장비들이 전시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주요 국가행사가 있을 때마다 작품성 있는 기념우표들을 발행한다. 우표는 현장 구매가 가능하며, 즉석으로 편지를 부칠 수 있다.

파두츠 성

리히텐슈타인의 공식적 명칭은 리히텐슈타인 공국(公國)이다. 왕보다 낮은 작위를 가진 군주가 다스리는 국가를 통칭하는 말로, 현재 군주는 한스-아담(Hans-Adam) II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리히텐슈타인 가문의 희생정신으로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를 얻은 덕에 다른 공국들과 달리 막대한 권한을 쥐고 있다.

파두츠 관광안내소 북쪽에 위치한 엥겔호텔(Hotel Engel) 오른쪽으로 20여 분만 올라가면 군주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파두츠 성에 당도할 수 있다. 사유지 푯말이 달린 울타리 사이로 그림 같은 정원이 들여다보인다. 일반인은 성 안 진입을 할 수 없지만 절벽 위에서 바라다 보이는 파두츠 전경이 일품이다.

리히텐슈타인 궁전박물관

오래 전부터 왕족이 소유한 저택이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17세기 유럽의 궁정화가인 루벤스 컬렉션으로 정평이 난 이곳은 유럽 왕실 박물관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르네상스시대부터 바로크,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 명작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스위스 패스

3·4·8·15일 또는 탑승 기간을 일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버스와 유람선, 파노라마 기차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15세 이하는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 박물관과 갤러리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과 등급에 따라 27만 원부터 비용이 추가된다. 국내 다양한 온라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사전 구매할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 카니발

해마다 2월에 열리는 리히텐슈타인 대표 축제다. 지역마다 주민들이 직접 동화 속 공주, 전사, 판타지 주인공 같은 분장을 하고 거리를 행진한다.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 밴드들의 연주가 거리에 울리며 축제 흥을 돋운다. 축제 두 달 전 11월 11월에는 오프닝 행사를 개최한다.

맑은 향취 은은한 기품

이천 안흥지 애련정

글·사진. 전부순

경기도 이천(利川)은 삼국시대 때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돼 한강을 차지하려면 먼저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다. 신라 김유신이 군사 5만을 이끌고 집결해 백제의 계백과 '황산벌전투'를 치른 전초지이기도 하다. 이렇듯 유서 깊은 땅, 이천에는 안흥지라는 멋들어진 연못이 있다. 그 한가운데에 버드나무들을 거느린 정자 애련정(愛蓮亭)이 근엄하면서도 다소곳이 앉아 있다.

군자의 향취 닮은 연꽃 정원

조선 초기 문신 겸 학자 임원준(1423~1500)이 지은 '애련정기(愛蓮亭記)'에 따르면 '객사 남쪽에 창건 일자를 알 수 없는 정자가 서있다. 세종 10년(1428)에 중건하고 세조 12년(1456) 이천부사 이세보가 다시 중건했다. 정자 앞 습지에 연못(안흥지)을 파고 그 한가운데 연을 심었다. 정자 이름은 당시 영의정 신숙주가 염계 주돈이의 시 '애련설(愛蓮說)'에서 따와 애련정이라 지었다'고 기록돼 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때 묻지 않기에 화(和)하고 탁(濁)하지 않는 군자의 기상을 볼 수 있다. 멀리서 봐도 친압하므로 덕성을 높이고 고명함이 지극한 모습이다. 더불어 '향은 멀리 갈수록 그 맑음을 더한다'는 뜻으로 지은 '향원정', '깨끗한 물에 씻겨도 요염치 않다'에서 '탁청정' 같은 이름을 지을 만큼 조선선비들은 주돈이를 존경했다. 특히 군자의 덕을 연꽃에 빗대어 쓴 그의 산문, 중국 한문학을 대표하는 애련설을 사랑했다.

주위 자연과 어우러져 멋진 풍광을 연출한 애련정은 많은 문인들은 물론 지근거리 여주에 세종대왕의 영릉이 있어 임금 왕래 또한 잦았다. 영릉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중종은 이곳에서 양로연을 베풀었다. 정조가 1779년 여주행궁에서 경기감사 정창성과 애련정을 주제로 나눈 대화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돼 있다.

TRAVEL INFORMATION

안흥지

주소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13번길 12(안흥동)

가는 방법
이천터미널에서 도보 5분 거리

1

행궁 뜰 가에 정자가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애련정인가?
애련이란 이름은 그 유래가 오래돼 국초부터 전해오고 '여지승람'에도 실려 있으며, 지금도 임원중이 지은 기문이 있습니다.

애련의 뜻은 주돈이의 애련설에서 딴 것인가?
이 정자는 언제 세웠는가?
고을 노인에게 물으니 이세보가 처음 정자를 세웠고 신숙주가 애련이라 편액했다 합니다.

풍월정집(월산대군 문집)에 '못을 새로 파고 연도 심으니, 풍류 사랑스럽고 주인 어질다' 했는데, 이 정자를 말함인가.
그렇사옵니다.

- <조선왕조실록> 정조와 경기감사 정창성의 대화

선인들 즐겨 찾은 청정 휴양 고을

조선 말 순종황제 원년(1907)에 정미의병이 일어났다. 일본군이 즉각 개입하면서 이천읍내 483 가구를 모두 불사르는 충화사건이 발생했다. 애련정은 이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천시는 시민 의견을 모아 1998년 우아한 단청이 돋보이는 애련정을 복원하고, 안흥지 일대는 사랑받는 휴식처인 공원으로 조성해 이천 시민들에게 되돌렸다. 연못가에 산책로를 내고 쉼터는 물론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두 개의 판석 위에 서거정과 월산대군 등 애련정을 소재로 쓴 시들을 모아 번역문과 함께 새긴 '애련정 시비'도 세웠다. 또 조선시대 목민관들이 펼친 선정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세운 선정비를 한 곳에 모아 고을의 자긍심을 높였다.

애련정은 양옆으로 푸른 호수에 비치는 커다란 버드나무들을 거느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 서있다. 호수 가운데 있는 정자 양쪽으로 다리를 놓아 연결하고 정면에는 연을 심어 7~8월 연꽃이 만발할 때면 향원익청(香遠益淸) 애련의 풍취를 느낄 수 있다. 정자 안에는 자연 속에 은둔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만 했던 월산대군을 비롯해 서거정·김진상·조위·강경서 같은 당대 문장가들이 쓴 시가 걸려 있다.

그 누가 염계를 뒤이어 애련을 말했는가,
정자를 명명함이 옛 현인에 꼭 부합되네.
그대는 응당 덕을 닮아 평생 좋아했겠지.
나 또한 속이 텅 빈 걸 죽도록 사랑한다오.
열매가 말[斗]처럼 둥글단 말은 이미 들었지만
꽃이 피어 배보다 큰 것도 일찍이 보았네.
다시 재배하는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시게
풍월 실은 장래에 흥취 주체못할 테니.

- 서거정 <애련정>

풍월정(風月亭)은 월산대군의 호다. 침착하고 결백한 성품대로 술을 즐기며 산수를 좋아한 그는 애련정에서 풍광에 취해 부드럽고 율격 높은 시 한 수를 남겼다.

2

3

4

새 못을 파고 또 연꽃을 심었으니,
풍류(風流) 주인의 어진 것이 사랑스럽네.
맑은 향기가 솔솔 퍼지니 뉘 능히 감상할까.
짙게 고운 것이 한들한들하니 나 홀로 사랑하네.
푸른 산과 붉은 단장은 밤 달을 맞이하고,
푸르고 맑은 물결에는 그림 배를 띄우세.
이 사이에서 술을 대하니 흥을 일으킬 만하고,
시를 읊어 기쁨에 미치고자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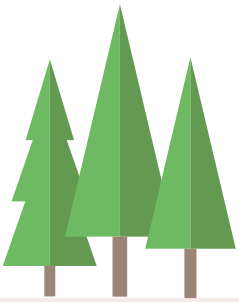
애련정이 있는 안흥지 주위에 조선 세종대왕 때부터 온천배미라 불려온 이천온천이 있다. 어느 날 농부가 더운 샘물을 발견하고 기이하게 여긴 나머지 그 물로 몸을 씻자 눈병이 나았다고 전해진다. 그 뒤 눈병을 비롯해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 효험을 얻어 약수로 일컬어 왔다. 온천에 몸을 담가 치료함을 탕치(湯治)라 한다. 세종과 세조도 이곳을 찾아 탕치를 했다. 몸의 나쁜 기운을 빼주고 좋은 성분은 들여 심신이 새로움을 느끼게 한다. 이천온천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 삼림욕을 겸한 트레킹도 즐길 수 있다. 이렇듯 문화란 사람들 삶이 축적돼 전승한 유·무형 자산이다. 이천시는 애련지를 포함한 안흥지 일대를 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했다.

1 누정은 풍광과 어우러져 경치를 감상하는 유상(遊賞), 독서하고 강론하는 강학(講學), 조상의 은덕을 생각하는 추모(追慕) 공간으로 활용됐다. 사진은 하늘에서 본 안흥지 전경이다

2 정자에서 밖을 바라보는 시선은 자연과 깊은 교감을 이루는 소통의 장이자 세속과 탈속의 경계를 허무는 공간이다

3 누정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선조들의 정신과 혼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애련정 안에 걸린 서거정의 칠언절구 편액이다

4 1474년 이천부사로 부임한 이세보가 동헌 동쪽에 세운 애련정은 영의정 신숙주가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에서 따온 이름이다



봄 건너 아홉 봉우리

영남알프스 1000고지 9봉우리 완등기 ①

글. 양재원(제품출하팀)

영남알프스 아홉 명산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곳이 있다. 울산·밀양·양산·경주·청도의 접경지에 형성된 가지산을 중심으로 한 해발 1천m 이상의 아홉 개 산이다. 신불산(1,159m)·영축산(1,081m)·간월산(1,069m)·천황산(1,189m)·재약산(1,108m)·가지산(1,241m)·고헌산(1,034m)·문복산(1,015m)·운문산(1,188m)으로 수려한 산세와 풍광을 자랑한다. 3월부터 4월 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등반에 나선 끝에 아홉 굽이 영남알프스를 완등할 수 있었다. 잊지 못할 감동의 경험을 사보 2호 연재 글로 소개한다.

3월 24일, 산행의 시작이다. 30년 전 베네고개 근처에서 1개월 동안 숙식하며 소일거리를 작업한 기억이 있어 신불산으로 행선지를 정했다. 간월산장 근처에 주차한 뒤 홍류폭포를 지날 때쯤 큰 등산 가방을 짊어진 등산객과 우연히 얘기를 나눴다. 행선지가 같은 덕에 초행길이지만 든든한 일행을 만난 것 같아 반가웠다. 홍류폭포를 지나 칼바위(위험구역)를 무사히 건너 신불산 정상에 도착했다. 약간의 운무가 있었지만 영남알프스의 빼어난 경관은 가리지 못했다. 함께 산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영남알프스 1,000m 이상인 아홉 개의 산을 차례로 완등할 계획을 전해 들었다.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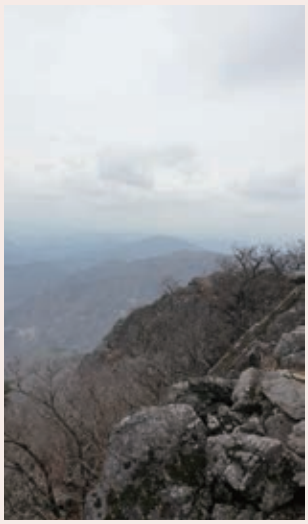
신불산부터 재약산까지

신불산에서 영축산 가는 능선에서 허기진 배를 달랜 뒤 서둘러 채비를 갖추고 정상으로 향했다.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정상에 올라 간월산까지 등반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가했다. 신불산에서 영축산, 다시 신불산을 넘을 때는 힘이 들었지만 간월산만 오르면 1일 3봉을 오른다는 생각에 에너지를 끌어 모았다. 그렇게 오른 간월산 정상은 영남알프스의 맛보기처럼 멋진 풍광으로 우리에게 화답했다.

첫 산행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도록 나흘 뒤인 3월 28일, 두 번째 산행에 나섰다. 목표는 천황산과 재약산이다. 베네고개 주차장에서 능동산(983m)을 넘어 천황산으로 향했다. 꽤 장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혼자 산행에 나설 때는 이정표 확인이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산속에서 길을 잃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임도를 따라 가다보니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타는 곳이 멀리서 보였다. 이곳 산악인들에게 유명한 샘물상회를 지나 오르막길을 올라 천황산 정상에 도착했다. 운무와 함께 사방에서 칼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로 느껴졌지만 새벽부터 찬바람을 뚫고 온 보람이 있었다.

천황재로 다시 내려가 이날 마지막 목적지인 재약산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이정표가 없어 험로로 가기도 했지만 절벽을 건너니 곧 정상이 나타났다. 바위산 위에 세워진 정상석에서 인증사진을 남기고 다시 천황산을 넘어 하산했다. 이날 하루 도상거리만 17.51㎞로 약 6시간 소요됐지만 오히려 피로가 사라지는 듯 개운했다. 영남알프스 완등을 향한 여정도 벌써 절반을 넘어섰다.

* 다음 호에 계속



사소한 역사 유쾌한 발견

도서 <B급 세계사> 독후감

글. 박종진(기획분석팀)

B급 콘텐츠가 더 큰 소구력을 발휘하는 시대다. 꼿꼿하게 다 갖춘 공식적인 모습보다 조금은 느슨하고 사사로운 이면이 사랑 받는다. 주류들도 B급을 찾는다. 예의 차리지 않고 적당히 내지르는 교육방송 캐릭터 '펭수'가 그렇고, 예능신 유재석을 데려다가 매번 당황시키는 공중파TV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그렇다.

이 책은 독서모임을 통해 읽게 됐다. 'B급 세계사' 쉰다섯 가지를 다룬다. 대부분 익숙한 이야기들이다. 햄버거 이름은 무엇에서 유래됐는지, 총기를 왜 자유롭게 허용하게 됐는지,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 그리고 오렌지 맛 음료인 환타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 '사소하고 꼬질꼬질한 것들의 역사'다.

모른다고 하기에는 어디선가 들어 알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자신 있게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찜찜하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 적절하고 명쾌한 수준의 상식들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과 관련한 주변 사건들을 상하좌우로 훑어 상식과 지식의 진폭을 확장시킨다.

가장 큰 깨달음은 역사를 소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또는 도전이 필요한 보고 자리에서 나와 상대의 머리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대화 소재로 제격이다. 챕터와 관계없이 읽어도 무방해 더욱 좋다. 마음에 드는 주제부터 골라 읽으며 독서 자체를 즐기는 데 지장이 없다.

현재까지 인류문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 굵직한 사건에 묻혀 조명하지 않았던 일들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업무를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기존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색다른 시선과 창의적인 사고로 일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타협 없는 안전 수호

안전캠페인 시행

글. 이상준(기술교육팀)

4월 28일 온산공장에 안전모와 마스크·위생장갑으로 무장한 직원들이 모였다. 올해 2분기 안전캠페인 현장이다. 이날은 공장지원부문이 캠페인을 주도했다.

온산공장은 우리 임직원뿐 아니라 무수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는 터전이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지내고 있다. 우리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지켜온 것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전 지구적 바이러스 사태다. 그래서인지 캠페인 행렬과 맞닥뜨린 직원들 표정이 더더욱 결연했다.

캠페인에 나선 임직원은 감염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손 팻말을 들고 현수막을 앞세웠다. 우리 직원과 협력업체 작업자들을 눈빛으로 맞이하며 유인물 나눠주는 손길이 바쁘다. 신종 바이러스에 관한 기초 정보와 사업장·가정에서 지킬 행동지침이 담겼다.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내용일 텐데 유인물을 받아 든 직원들은 그 내용을 한번 더 꼼꼼하게 살폈다.

우리 사업장을 완전무결하게 지켜내겠다는 의지는 모두 같다. 자연히 캠페인 추진 인원과 공장 출입문을 오가는 인력 사이에 주객이 따로 없었다. 특히 안전캠페인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힘은 바로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캠페인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분위기를 접하며 확신이 들었다. 절체절명의 이 위기도 우리 힘으로 반드시 극복하리라는 분명한 확신이다.

프리미엄 날개 달고 출격

휘발유 엔진용 윤활유
최신 국제규격 인증 신제품 출시

글. 권대웅(윤활유사업팀)

엄격한 국제규격 맞춘 선제적 대응

우리회사가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이하 API)와 국제윤활유표준인증위원회(International Lubricants Specification Advisory Committee, 이하 ILSAC)의 최신 성능 규격 인증을 획득한 휘발유 엔진용 윤활유를 5월 1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 출시는 API와 ILSAC가 휘발유 엔진용 윤활유의 새 규격인 'API SP'와 'ILSAC GF-6'를 발효한 날짜에 꼭 맞춰 이뤄졌다. 새 규격은 연비 절감, 엔진 마모, 연료 이상 연소 등 기준치 강화에 따른 것이다. 우리회사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윤활유 국제규격 추세를 주시하며 선제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활부문은 시장 경향과 기술 추이를 면밀히 살펴 최신 성능 규격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적기에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시장에 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API와 ILSAC는 앞서 2010년 10월에 휘발유 엔진용 윤활유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SN'과 'GF-5'를 확립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5월 저속조기점화(이하 LSPI) 위주로 부분 개선된 'SN PLUS' 규격을 거쳐 10년 만에 새 국제규격이 발효되면서 우리회사는 한층 엄격하게 수립된 해당 기준에 맞춰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뛰어난 연비 절감·우수한 윤활 성능

최신 국제규격 인증을 받은 이번 신제품은 뛰어난 연비 절감 특성을 지닌다. 또한 강화된 피스톤 청정성·산화안정성에 따라 우수한 윤활 성능을 발휘하면서 엔진의 운전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직접분사방식(GDI)과 터보직접분사방식(TGDI) 같이 최신형 고성능 엔진에서 발생되는 LSPI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타이밍 체인 마모 방지 성능으로 엔진을 강력히 보호해 기존 제품들과 명확한 차별화를 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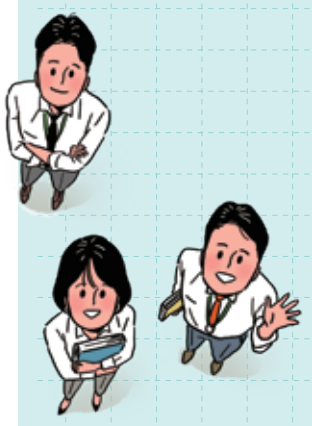
신규 규격 계획이 발표된 2018년 여름부터 서울 마곡 소재 기술개발센터(S-OIL TS&D Center) 내 윤활R&D팀과 윤활유사업팀은 첨가제사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신규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매진했다. 환경보호 강화에 발맞춘 연비 개선 요구와 엔진 소형화, 윤활유 저점도화 등 경향으로 더욱더 가혹한 환경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윤활유 제품만이 신규 규격에 부합할 수 있다. 이같은 제품력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에서는 Group III 이상의 고급 윤활기유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회사는 우리 공정을 통해 직접 생산하고 있는 최고급 윤활기유 aramcoULTRA를 기초로 윤활유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신규 규격에 부합하는 최고의 제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있었다.

새 윤활유 제품은 우리 윤활유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장에 나섰다. 자동차용 윤활유 브랜드인 'S-OIL 7'을 앞세운 가운데 휘발유 전용 윤활유 라인업인 'RED' 라인을 적용해 'S-OIL 7 RED'로 출시됐다. 국외 시장에서는 우리회사가 직접 출시를 맡아 제품을 소개하며, 국내 시장에는 에쓰-오일 토탈윤활유주식회사(STLC)를 통해 출시된다.

활자에 깃든 꿈

제28회 오영수문학상 후원 소설가 김인숙 선정

글. 이수연(대외업무팀)



울산 출신 소설가 오영수 선생의 문학정신을 면면히 잇는 오영수문학상이 올해 28회째를 맞아 수상자를 배출했다. 주인공은 김인숙 작가다. 계간 문예지인 「문학동네」에 지난해 봄 발표한 단편소설 <그해 여름의 수기>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로 연기됐으나 수상자 선정을 위한 각고의 헌신은 지속됐다. 오영수문학상운영위원회는 4월 25일 서울에서 최종심사위원회를 열고 예심을 거친 작품 4편 가운데 만장일치로 수상자를 확정했다. 앞서 운영위는 국내 권위 있는 문예지와 문학단체로부터 중·단편 소설 가운데 우수작 20편을 추천 받아 엄정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수상자에게 상금 3천만 원이 지급됐다.

김인숙 작가는 1963년 서울 태생으로 198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단편소설 <상실의 계절>로 등단했다. 이후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이번 선정작 <그해 여름의 수기>는 십대 주인공 '수기'가 수해를 입은 뒤 다양한 감정을 극복하며 장년으로 자라나는 이야기다. 산사태로 집이 물에 잠기면서 동생을 떠나보내고 병원에서 지내는 부모와 떨어져 홀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져 있던 그해 여름 기억이 세밀하다.

우리회사는 1993년 울산매일신문사와 함께 오영수문학상을 제정하고 후원을 이어왔다. 울산을 이끄는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문학상의 권위를 함께 지키고자 후원한 시간이 30년을 향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오영수문학상은 문단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기는 창피했다.
자신이 수재민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남의 집 신세를
져야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동생이 죽은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해 여름의 수기> 중
김인숙 저·계간「문학동네」2019년 봄호

지속성장 이끄는 탁월한 경쟁력

사우디아람코 우수 합작투자기업 어워드 4년 연속 수상

우리회사가 4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서 열린 2020년 우수 합작투자기업 어워드(Saudi Aramco 2020 President's JV Excellence Awards)에서 'Operational Excellence'(이하 OE) 부문 2위(Runner-up)에 올랐다. 이번 수상으로 우리회사는 시상이 도입된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수상 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이 시상 부문이 신설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사우디아람코는 정유·석유화학 등 하류(Downstream) 부문의 합작투자기업과 자회사들의 성과를 평가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상을 제정해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보건·안전·환경(Health·Safety·Environment, HSE)과 'Asset Availability', 'Energy Intensity'에 지난해 신설된 OE를 더해 총 4개 부문으로 시상한다.

올해 우리회사가 수상한 OE 부문은 다른 3개 부문을 포함해 전반적인 경영 체계와 활동, 성과에 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전략과 리더십, 마케팅, 인적자원, 운영 효율성, 프로세스, 공급망, 리스크 관리, 혁신과 개선활동 등 경영활동 전반을 포함한다.

이번 수상은 경영진의 리더십과 임직원의 역량,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회사가 굳건히 확보하고 있는 탁월한 수준과 지위를 사우디아람코로부터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선한 인연이 가꾸는 고운 선율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후원금 전달

장애와 비장애 사이 보이지 않는 경계가 사라질 희망을 향해 손 맞잡은 세월이 10년여다. 우리회사는 올해도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재단에 전달했다. 2009년 이래 열두 번째 후원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춘 전달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약식으로 마련됐다. 본사 내 소박한 집무실에 조촐한 인원만을 허락해 오히려 정답다. 이 자리에서 조영일 수석부사장은 오지철 하트하트재단이사장에게 후원의 뜻을 전하면서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변함없이 다부진 활동을 이어갈 것을 기대했다.

우리회사가 전하는 후원금은 장애인이 참여

해 스스로 성장하면서 비장애인의 인식도 바꿔나가는 값진 활동에 재원이 된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 공연은 물론 저소득가정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 지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교육 등에 고루 쓰인다.

특히 올해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3월 19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연주 캠페인을 펼쳐 희망의 선율을 잇는다. 오케스트라 단원은 국내외 곳곳의 뜻있는 연주자들이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배턴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병원, 복지기관 등에서 희망 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장애 청소년의 재능 계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2006년 창단한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다. 우리회사는 그동안 햇살나눔 콘서트 개최, 장애이해 교육인 하트해피스쿨 운영, 발달장애인 연주자 장학금 지급 등으로 총 10억 원을 후원했다.

알고 듣는 오케스트라 ♬

규모에 따라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챔버 오케스트라로 구분

→ 심포니 오케스트라(대관현악)는 100명 정도 연주자로 구성된 규모가 큰 오케스트라다. 챔버 오케스트라(실내 관현악)는 15~60명 단원으로 구성된다.

악장은 객석에서 볼 때 지휘자 바로 왼쪽에 위치

→ 오케스트라 단원을 대표하는 악장은 객석에서 볼 때 지휘자 바로 왼쪽(제1바이올린 맨 앞줄 끝)에 위치한다.

공연 전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는 오보에 A(라)음에 맞춰 조율

→ 음높이 조절이 예민한 현악기보다 목관악기인 오보에의 A(라)음에 맞춰 조율을 한다.

현악기 파트는 2인 1조로 악보 공유

→ 두 사람 중 연차가 낮은 연주자가 악보 넘기는 역할을 담당한다.

2009~2019 지원 발자취

프로그램	실적	기부금
햇살나눔 콘서트 개최	에쓰-오일 임직원(11회) 일반 시민(14회)	1억9천 3백만 원
장애이해교육 하트해피스쿨	초·중·고 232개교, 약 9만3백 명	5억3천 9백만 원
발달장애청소년 장학금 지원	발달장애청소년 182명	2억6천 8백만 원
합계		**10억**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자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COVID-19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 ▶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휴대폰·리모컨·손잡이·문고리·스위치·키보드·마우스 등)
-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집단방역

- ▶ 공동체가 함께 노력
-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 ▶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
- ▶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 ▶ 공동체는 방역 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달라진 시행 지침

공적마스크 구매 개선

▶ 1인당 주마다 3매 가능

▶ 대리구매 기준 완화

예시) 대리 구매 자녀와 요일 달라도 함께 구매 가능

마스크 해외 배송

▶ 재외국민 가족에 1인당 달마다 8매 (의료용·보건용) 배송 가능

▶ 재외국민 지인에 의료용·보건용 제외한 마스크 배송 가능 (수량제한 없음)

자가격리 위반자 처벌 강화

▶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남은 격려기간 동안 안심밴드 착용

*착용 거부 시 시설격리(비용 자가부담)

05

MAY 2020

【 보직변경 】

4.9

김태일(1급.강남지사장)→
대리점영업팀리더

정희윤(1급.남양주지사장)→강남지사장

4.16

박기수(2급.품질관리팀)→윤활R&D팀

이재득(계장.품질관리팀)→
생산구매지원팀

강용석(계장.생산구매지원팀)→
연차보수팀

4.27

김건희(1급.Site Preparation팀리더)→
투자공사팀

박성재(4급.프로젝트기계기술팀)→
기계설계팀

김수진(일반사무직2급.자재관리팀)·전은경(일반사무직4급.Defect Elimination팀)→총무보안팀

이현경(일반사무직3급.총무보안팀)→
Defect Elimination팀

김혜정(일반사무직1급.창원지사 관리담당)→구미지사(관리담당)

【 지사장 임명 】

4.9

조국현(2급.남양주지사)→
남양주지사장

【 해외유학 파견 】

5.4

신재훈(3급.회계팀) →
인력개발팀 부(휴직)

【 정년퇴직 】

4.30

이중범(1급.홍보팀)

김차룡(2급.Hydrocracker공정팀)

조삼제(2급.창원지사)

양승우(3급.인천지사)

【 퇴직 】

4.27

이정제(운전원.RFCC2팀)

5.4

박주환(4급.검사기술팀)

【 결혼 】

4.19

전송욱(수급운영팀)

4.25

이성환(검사기술팀)

이은규(정비계획팀)

박동채(PO/MTBE팀)

4.26

박준모(검사기술팀)

5.2

서용수(PX2팀)

5.3

신정헌(생산회계팀)

5.9

김동훈(강남지사) 아들

황태진(검사진단팀)

김송환(아로마틱1팀)

김정환(RFCC1공정팀)

5.10

안영수(PP영업팀)

5.16

김진호(제품운영3팀) 딸

김복수(제품출하팀) 아들

김상덕(아로마틱1팀)

【 부음 】

4.3
방성민(계기1팀) 빙모

4.5
강성훈(기계1팀) 부친

4.6
최은광(PO/MTBE팀) 외조부
신영식(용도개발/기술지원팀) 조모

4.7
서원영(동부영업지원팀) 모친

4.8
조한길(환경팀) 부친

4.9
양승우(인천지사) 빙모

4.12
김상철(Hydrocracker팀) 모친
조동진(영업관리팀) 부친

4.13
심한수(검사진단팀) 모친

4.17
차영환(안전대응팀) 빙모
허성주(품질관리팀) 조부
김은범(법인영업팀) 모친

4.19
전영준(영천저유소) 빙모
이승섭(서부영업지원팀) 모친
진명진(TC2C팀) 외조모

4.21
장범중(아로마틱2팀) 모친

4.22
김현태(탈황2팀) 부친

4.23
이전호(PO/MTBE팀) 조모
김영철(감사1팀) 외조모

4.24
조광현(용인지사) 모친

4.26
송학석(중부영업지원팀) 빙부
김진수(프로젝트조정팀) 조모

4.28
강신기(아로마틱2팀) 모친
박성진(자재관리팀) 빙모

5.5
최동식(제품운영3팀) 모친

NOTICE

사보 <S-OIL>에 정다운 추억을 남기세요

임직원 사연을 에세이로 기록해 드립니다.
편집실에 글과 사진을 보내시면
어엿한 콘텐츠로 게재됩니다.
글은 분야와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격의 없이 대강 작성한 글도 충실한
윤문을 거칩니다.
송부하신 글과 사진이 실제 지면에 실리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주제
#나홀로 또는 가족 여행기
#자녀 또는 부모님 등 가족의 편지
#각종 체험기·관람기
#동기 또는 선후배 모임 후기
#동호회 활동기
#부서 또는 개인 업무 관련 사연
#소소한 개인 일상 또는 단상 소개 등

글
워드문서 기본설정 기준 약 0.5~1면

사진
사진 4장 이상 원본파일 필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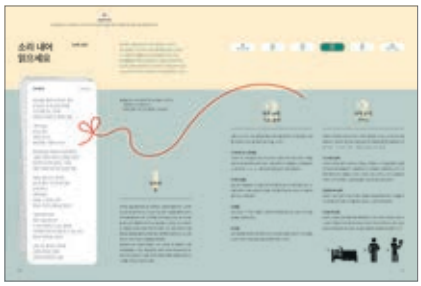
기한
연중 상시 모집

송고
sabo@s-oil.com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고전 속 핵심가치> 협력 - 동주공제(同舟共濟)
사자성어에 얽힌 이야기를 읽으니 그 뜻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공감이 됩니다.
김종필(정유3팀)



<습관의 기적> 낭독 습관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송유호(화학생산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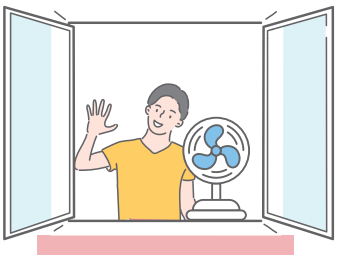
<읽고 듣는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얇은 사보이지만 두꺼운 책 한 권만큼
알뜰하게 편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희(샬롬주유소.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이달의 퀴즈

Quiz 01. 생활안전 아이콘

올바른 환기 방법은?

① 창문 열고 선풍기 가동



② 창문 닫고 공기청정기 가동

Quiz 02. 즐거운 두뇌 훈련

다음 <보기>의 기호를 보며 해당되는 숫자를 넣어 계산하시오.

▨	♣	▲	◎	◐	$	₩	♥	❖	★
0	1	2	3	4	5	6	7	8	9

<예시>	▲ + ◐ = 6	❖▨ + ◎♥ = 117
	2 + 4 = 6	8 0 + 3 7 = 117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자료** 삼성서울병원 뇌 신경센터 '뇌 훈련 퀴즈'

<터벅터벅 소도시> 아르헨티나 라보카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다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김영철(감사1팀)

<이달의 활력평가> 선거
투표할 때 무심코 사용했던 기표 용구의
숨은 뜻을 알게 됐습니다.
전현숙(공단주유소.경북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이달의 퀴즈> 즐거운 두뇌 훈련
첫 번째 문제가 어려워 모두들
고심해서 풀었습니다.
김정현(아로마틱1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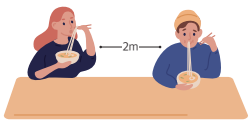
지난호 퀴즈 정답 · 당첨자

Quiz 01.
생활안전 아이콘

**'사회적 거리두기'의
올바른 실천은?**

→ 정답.

②



감염 예방을 위해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은 피한다.

***자료** 질병관리본부

Quiz 02.
즐거운 두뇌 훈련

**다음 <보기>와 같이 단어 앞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보기>

결 | 꾸다 | 나라 → "꿈"
꿈결, 꿈꾸다, 꿈나라...

❶ 마늘 / 나무 / 닭 → 생

❷ 사랑 / 솟다 / 밀다 → 치

❸ 이불 / 겹 / 바지 → 홑

❹ 소매 / 낯 / 며느리 → 민

❺ 갈리다 / 박자 / 나가다 → 엇

❻ 붙이다 / 니 / 버선 → 덧

블루투스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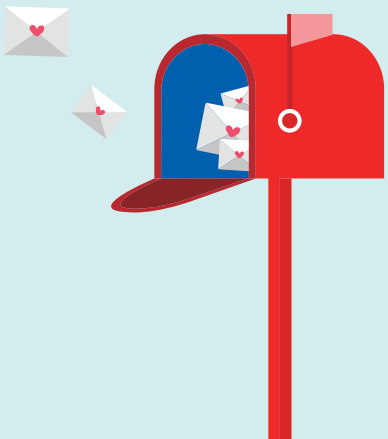
—

김다혜(Alkylation1팀 김기송 사우 가족)
진철민(탈황2팀 진대중 사우 가족)
유병찬(계전설계팀)
한병채(품질관리팀)

휴대폰 보조배터리

—

박장환(정유2팀)
이성범(Hydrocraker팀)
강필직(Alkylation2팀)
김윤정(해외운영팀)



올해 사보 표지는 핵심가치를 통찰해 볼 수 있는
동화 이야기를 소재로 그려나갑니다.

S-OIL